

## 미첼 바첼렛, 칠레 최초의 여성대통령 등장의 의미와 리더십\*

이순주(부산외대)\*\*

- I. 들어가는 말
- II. 미첼 바첼렛의 삶과 정치적 역정
- III. 여성 대통령 등장의 배경으로서의 칠레 정치사회의 변화
- IV. 바첼렛의 정치적 성향과 리더십 스타일
- V. 맺음말

### I. 들어가는 말

지난해 초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네 번째로 선거에 의해 선출된 여성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기는 했으나, 파나마의 비올레타 차모로(Violeta Barrios de Chamorro, 1990-1997)대통령, 기아나의 자넷 로젠버그(Janet Rosenberg Jagan, 1997-1999), 그리고 니카라과의 미레야 모스코소(Mireya Elisa Moscoso Rodríguez de Arias, 1999-2004)대통령은 남편의 후광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커다란 부분을 차지했다. 이와는 달리 칠레의 미첼 바첼렛(Verónica

\* 본 연구는 2006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6-353-B00048)

\*\* Soon-Joo Lee(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berol@pufs.ac.kr) “The Significance of First Woman President in Chile and the Leadership of Michelle Bachelet”

Michelle Bachelet Jeria)은 그러한 후광에 힘입지 않고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칠레는 라틴아메리카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며, 남성지배적인 국가다. 미첼 바첼렛은 이러한 보수적인 국가에서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여성국방부 장관에서 다시 칠레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되었다. 미첼 바첼렛은 또한 1970년대에서 현재까지 칠레의 정치사와 고락을 함께 한 인물이다. 쿠데타 이후 아버지를 잃고 자신도 군부정권에 의한 정치탄압의 희생자였으며, 민주주의의 회복과 함께 다시 권위주의 청산의 중심에 선 인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들은 미첼 바첼렛 대통령 탄생이 갖는 정치, 사회 및 역사적 의미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다.

많은 여성이 공직에 진출하고 대통령에 오른다는 것은 여성을 대표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여성들을 위해 행동한다는 실질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해당 공직자가 추진하는 정책은 대의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특히 여성공직자나 위정자들이 추진하는 정책의 내용과 방식은 다를 것이라고 여성운동가들이 주장한다. 그러나 좀 더 많은 여성을 국회의원이거나 대통령으로 선출한다는 것이 반드시 여성의 삶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 페미니스트들의 생각과 일치하지는 않는다.(Burrell 1997, 1)

한편, 바첼렛은 여성인 자신이 기존의 남성에 의한 정치와는 ‘다른 정치’를 하겠다고 공언했고, 그러한 시작은 첫 내각의 절반을 여성으로 구성함으로써 4년 동안의 짧은 임기지만 앞으로의 많은 변화를 예고했다.

최근 국내외에서 여성정치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남성 편향적 공직사회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여성들 중 여성 장/차관, 시장 등을 중심으로 리더십 유형을 분류하고 해당인물을 중심으로 한 분석에 초점을 둔 연구, 그리고 여성 리더십 개발 및 확대를 위한 방안 등에 관한 연구들이 중점을 이루고 있다. 또한 보다 나은 리더십에 대한 모색으로서의 ‘여성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연구(남인숙 2005)들이 많다. 가장 최근

의 연구 성과로서 여성대통령이 세계 각국에서 등장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의 흐름을 포착하기 위해 한국정치학회의 2005년도 연례학술회의에서 ‘세계 여성정치인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다룬 적이 있다. 세계 각국의 여성대통령의 리더십을 다루고 있는데 그 초점은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개인적 성장배경과 정치적 상황에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여성정치리더십 연구들은 서구선진국의 사례와 한국과 인접한 아시아지역 - 특히 필리핀, 미얀마 등 - 의 사례가 연구되었다.<sup>1)</sup>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여성 정치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석사학위논문(전주예 1996)으로 1편, 학회발표논문이 1편(이순주 2005), 그리고 에바 페론에 관한 연구(최권준 2005)가 1편이 있다. 기존의 석사학위 논문에서는 설정된 두 인물을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나머지도 여성대통령의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국외에서의 여성정치리더십 연구는 첫째, 여성정치리더십과 남성정치리더십의 본질적 차이에 관한 연구, 둘째, ‘유리장벽’으로 지칭되는 여성정치리더십 등장에 있어서의 고질적인 장애요인들에 관한 연구, 셋째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정치리더십의 등장과 유형에 관한 연구, 넷째 여성정치 참여확대의 측면에서 여성정치지도자들의 역할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의 대상사례들은 서구선진국의 사례들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왔으며, 인도와 필리핀과 같은 지역에서의 여성리더십의 사례도 자주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라틴아메리카지역 여성정치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스페인 식민지와 가톨릭적 전통을 역사, 문화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필리핀과의 비교가 주로 이루어져 왔고 리더십의 연구 대상은 여성대통령이었다. 이 경우 여성정치인으로서의 등장배경으로서의 개인사적 요소들, 예를 들면, 과거 통치자의 배우자 혹은 딸이라는 가족관계가 대중으로부터 즉각적인 반응과 지지를 이끌어내게 하는 요인이라고 본다(Silvestre 2001). 또한 부패가 만연한 사회적 상황에서 가톨릭교회의 전통적인 여성에 대한 깨끗한 이미지는 여성을 대통령으로 선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1)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양길현(2003), 김민정(2006)을 들 수 있다.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들은 여성대통령으로 등장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하지만, 실제로 효과적인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는 부정적인 요소이자 한계로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Jalalzai 2004, 87) 또한 여성정치리더십의 양적 증가는 여성발전을 가지고 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해석되기도 했다. 이러한 여성정치리더십에 대한 평가들은 같은 지위의 남성에 대한 평가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내려지는 경향이 있다.

이 글에서는 칠레와 같이 보수적인 국가에서 어떻게 바첼렛이 대통령으로 등장할 수 있었는지를 개인적 요인으로서 바첼렛의 삶과 정치적 역량, 그리고 상황요인으로서 칠레의 정치사회적 변화의 측면들을 살펴본다. 또한 그녀의 정치적 성향과 리더십의 특징적 측면들을 통해 바첼렛 등장의 의미와 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미첼 바첼렛의 삶과 정치적 역량

1951년 9월 29일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서 인류학자인 어머니 앙헬라 헤리아 고메스(Ángela Jeria Gómez)와 공군준장이었던 아버지 알베르토 바첼렛 마르띠네스(Alberto Bachelet Martínez) 사이에서 태어났다. 현재 이혼경력이 있으며 1남 2녀를 두고 있다. 전직 직업은 소아과/공공보건 전문의이며, 스페인어, 영어, 독일어, 불어, 포르투갈어 등 5개 국어에 능통하다. 2000년도에 보건장관을 역임했고, 2002년 초반 민간인 여성으로서 국방장관에 임명되었다. 그의 국방장관 취임은 군사잔재 청산과 민군관계 개선이 최대 정치적 쟁점이던 시기에 국민화합의 상징 인물로 떠올랐다. 2004년 10월 1일 국방장관에서 퇴임하여 2차 선거를 통해 2006년 3월 대통령에 취임했다.

바첼렛의 정치적 입문은 그의 유·청년기를 통해 나타난 리더로서의 자질과 가족사를 통해 이미 예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그는 중학교 시절부터 합창단, 발리볼, 연극반 등의 다양한 특활활동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박수, 박수(Las Clap Clap)’라는 교내 뮤지컬그룹을 이끌고 학교 간 경연대회에 다수 출전하기도 했다. 1970년도 칠레대학교 의학부에 입학한 후, 사회학과 경제학 공부에도 상당한 열의를 보였다. 1973년 이전까지 인민연합정부시기에 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사회주의 청년단에 입단하여 활동한 바 있다.(<http://www.michellebachelet.cl/>)

공군소장 출신인 그의 부친은 아옌데 정권기에 식량공급 사무국장직을 맡아왔으나, 군사 쿠데타 이후 아옌데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국가반역죄’로 지목되어 체포되었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바첼렛에게는 쿠데타 이후 수년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다. 바첼렛은 피노체트에게 저항하기 위해 의과대학에 재학하면서 학생신분으로 비밀리에 사회주의 청년단(Juventud Socialista)에서 사회당 유지와 관련한 활동과 정치적 수배자들을 돕는 활동을 했다. 그러나 결국 비밀경찰들에 의해 독재정권의 가장 핵심 고문처로 유명한 일명 비야 그리말디(Villa Grimaldi)라고 불리는 국가정보국에 체포, 감금되었다가 3개월 만에 친척 등의 인맥을 통해 풀려났다.(Daniels 2006, 30-31)

이후 국외로 추방당해 호주와 동독 등을 전전했다. 1979년 동독에서 귀국한 후 칠레대학교에서 의학공부를 다시 시작하여 1982년도에 소아과전문의가 되어 공공보건의를 신청했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거부당했다. 바첼렛은 이때부터 자신이 본격적으로 다양한 정치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피노체트 정부가 금지시킨 사회주의 진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 중, 바첼렛은 사회주의자로서 정부가 국가경제의 실질적인 부분을 통제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당시 그의 정치활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비상사태에 의한 피해아동 보호단(PIDEE)’활동이었다. 군정기 동안 희생되거나 체포된 자들의 자녀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민간단체활동으로, 이 단체의 의료부문을 맡았다.

바첼렛은 평생 사회주의 당원이었다. 민주주의로의 이양과 함께 사회당의 수뇌부에 들 수 있었다. 바첼렛은 1990년대 중반부터 칠레 민주주의가 공고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민-군관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칠레의 가장 권위 있는 군사학교인 국립정치-전략연구아카데미에서 군사전략과정을 수료할 수 있었다. 거기서 그는 보건부에서의 시간제 근무를 병행했다. 바첼렛은 그의 학급에서 가장 뛰어났고 그 결과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주안보학교(Inter-American Defense College)에 장학생으로 입학하는 영예를 얻었다. 국립정치-전략아카데미와 미주안보대학에서의 수학과정 동안 그는 제도, 정치, 문화가 안보 정책들과 어떠한 상호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왔으며 칠레국방부의 고문역할도 수행한 바 있다. (<http://www.michellebachelet.cl/>) 이러한 경력들은 이후 바첼렛이 2000년 보건부 장관을 거쳐 2002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데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2000년 바첼렛은 리카르도 라고스 정부의 보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보건부의 책임자로서 그녀는 직접적으로 7만 개의 기구들과 서비스 국가망을 이끌었다. 그녀는 지역보건자치서비스와 민간의료보험기구인 ISAPRES(Instituciones de Salud Previsional)와 사설병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부분에까지 직, 간접적으로 관리하였다.

라고스 대통령이 보건부 장관인 그녀에게 부과한 과제는 두 가지였다. 한 가지는 1차 진료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진료를 받자면 3개월이나 기다려야 하는 1차 진료의 범위와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건부문의 대개혁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과제를 위해 바첼렛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협력을 얻어내야 할 대상과 기술적 복잡성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냈다. 그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은 보건부 내의 기술 관료들과 1차 진료 종사자, 그리고 기관들로부터 전례 없는 동원화와 약속이행을 얻어냈다.

이후 2002년도에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최초의 여성국방부장관이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국방부장관 재임시절 이끌고 있었던 군부고위자들 중 바첼렛과 그의 부친을 고문한 책임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군부에 의해 부친을 잃고, 스스로도 억압을 당했던 민간인 여성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한 라고스 대통령의 인사는 피노체트 신병처

리문제와 군사잔재청산 등이 주요 이슈였던 당시에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다. 또한 그녀의 국방장관임명은 라고스정부와 군부가 모두 국민적 화해과정에 활력을 넣기 위한 최대의 노력이었다.(Silva 2002, 392) 그럼에도 칠레의 장군들은 새로운 장관이 예전의 장교들보다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성모병을 확대하고 징병제를 폐지하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등 칠레군대의 현대화에 착수했고, 군에 대한 민간인의 통제를 강화했다. 유력한 칠레 시사잡지 *Capital*의 편집장 헥토르 소토는 바첼렛을 넬슨 만델라에 비유하면서 그녀의 가족의 좌파적 비극과 군사적역사가 민간인과 군부를 화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Daniels 2006, 31) 바첼렛은 2003년 환 에밀리오 체이레(Juan Emilio Cheyre)장군이 군부는 ‘결코 다시’ 칠레의 민주주의를 뒤엎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도록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칠레사회에 새로운 민-군관계 정립의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바첼렛의 후보추대는 매우 보수적이고 충실한 가톨릭국가에서 놀라운 일이었다. 세 명의 아이를 두고 있는데, 그 중 혼외관계로 한 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기도 한 이혼녀인 바첼렛은 13세인 딸을 위해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학교까지 배웅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여성이었다. 바첼렛은 대통령직에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라고스 정부에 입각하면서 유명인사가 되었고, 라고스 임기 말에 일부 상원의원들로부터 사회당의 대통령후보로 관심이 있는지를 타진 받았다. 이후 폰세르따시온의 후보로 확정되었다.

이후 바첼렛은 대통령 후보로서 ‘사람들은 여성에게 남성보다는 좀 더 윤리적이고, 세심함을 원한다.’면서 자신은 ‘여성이기 때문에 정치를 다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성대통령으로서의 다른 면모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2005년 12월 실시된 1차 대통령 선거에서 폰세르따시온의 후보로 출마하여 45.96%를 획득했고, 25.41%를 획득한 우파의 삐네라(Sebastián Piñera Echenique)후보와 결선에 올랐다. 결선에서 바첼렛은 53.50%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http://www.elecciones.gov.cl>) 바첼렛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53.08%는 여성이었다.

### III. 여성 대통령 등장의 배경으로서의 칠레 정치사회의 변화

칠레사회는 전 대통령 에두아르도 프레이가 여성대통령후보 선출 가능성에 대해 “칠레가 너무 마치스트적(machista)이고, 여성들이 남성보다 오히려 더 마치스트적이기 때문에”(Santiago Times) 어렵다고 공언할 정도로 여성의 정치활동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레 사회는 심대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칠레사회의 권위주의적이고 보수적인 문화가 자유와 자율성을 요구가 증대한 현대적인 문화로 변화해 가고 있다.(Guell 2004) 여성정치 지도자의 등장을 가능하게 한 칠레사회의 주요 변화들을 살펴보면 다음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III.1. 민주화 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증대

이미 칠레 사회는 강한 가톨릭문화로 인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바람직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가정에서의 주부와 어머니로의 역할에만 한정되어 있었고, ‘이혼’제도 또한 존재하지 않았던 국가다. 이혼은 2004년에 와서야 법적인 인정을 받았을 정도로 여성의 사회적 역할 범주에 있어서 매우 보수적인 국가다. 이러한 보수성은 칠레 최초의 여성대통령 등장 가능성을 앞두고 각 당의 최종 대선후보 선출과정에서부터 여성의 정치활동 및 능력을 폄하하는 발언들과 이에 대한 반박의 공방전 속에서도 매우 두드러졌었다.

여기에다 피노체트 정권은 집권기동안 여성의 ‘애국’을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충실한 가정에서의 역할’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칠레의 사회문화를 더욱 더 보수적으로 고착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오히려 칠



레 여성들은 이러한 피노체트가 강조한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피노체트 정권의 ‘인권남용’과 ‘독재’에 대한 저항과 반정부 운동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칠레여성들은 1980년대 중반 피노체트 정권말기에 매우 광범위하게 반독재운동에 참여했고, 그 결과 민주화과정에서 여성들이 사회의 한 구성요소로서의 역할비중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피노체트 이후 새롭게 등장한 문민정부 하에서 여성들은 ‘국가와 가정에서의 민주주의(Democracia en el país y en la casa)’를 구호로 정치적 민주주의의 회복을 사회와 가정에서의 민주화로 연계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민주화 과정에서의 여성들의 결집된 노력들은 1991년 여성정책전담 정부기구인 SERNAM(Servicio Nacional de la Mujer)가 창설로 이어졌다. ‘반독재, 민주화’라는 구호를 통해 매우 강한 결집력을 보였던 민주화 과정에서의 여성운동은 문민정부수립이후 각 여성운동그룹마다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갔다.(이순주 2003, 123-125)

이러한 민주화와 여성운동의 확대와 함께 SERNAM의 역할도 칠레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비중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SERNAM은 창립 이후 “더 많은 여성을 의회로!(Más Mujeres al Parlamento!)”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1차적으로 사법부와 행정부에서의 여성고용을 확대시켰다.(Binstock 1998, 24) 이 프로그램은 가급적 많은 여성들을 입법부를 비롯한 공직에 진출시켜 여성들을 위한 새로운 입법 및 정책결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칠레 사회의 변화들은 현재 미첼 바첼렛 대통령을 탄생하게 한 밑거름이 되었다.

### III.2. 여성할당제: 좁은 입법부의 문, 비교적 넓은 행정부의 문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저대표성을 해결하는 매우 실질적인 제도다. 칠레에는 아직 선거에서의 여성할당제<sup>2)</sup>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칠

2) 현재 의회선거에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에콰도르,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가 있다.

레 국회는 양원제이며, 하원 120명, 상원 38명으로 구성되어있다. 2005년 12월 총선 결과 하원 18명, 상원 2명의 여성이 선출되었다.(<http://www.elecciones.gov.cl>) 현재 의회에서의 여성참여율은 세계 72위에 해당되며, 미주대륙 전체 평균인 21.6%에도 훨씬 못 미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http://www.womeninparliamentary.org>)

1973년부터 1989년 민간정부로 정권을 이양하기 전까지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피노체트 집권기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민주적인 전통을 자랑하던 칠레 정치문화를 후퇴시켰다. 피노체트는 집권하는 동안 철저하게 자신이 대통령에서 물러난 이후를 준비를 해왔고, 그러한 준비는 ‘1980년 헌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1980년 헌법’에서는 선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도’에 의해 임명되는 상원 의원제도와 전임 대통령을 종신상원의원으로 위촉하는 제도를 두어 자신의 퇴임 후의 권력을 보장받으려 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민주화이후 2005년 선거법개정 이전까지 상원에서는 군부를 지지하는 우파의 세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칠레 선거시스템은 여성들의 정치적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각 정당마다 선거구 별로 2명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2석선거구(binomial) 방식’에서는 보다 많은 의석확보를 위해서 각 정당들이 연합을 통해 공동으로 후보를 공천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Siavelis 2004; Hunneus 2005; Helgesen 2006) 여성들은 이러한 연합들에서 더욱 더 의회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일부 정당들이 내규로서 당 지도부내에서의 여성비율을 정하거나 선거후보 중 최소비율을 정하기는 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여성비율과 관련한 경향은 당의 이데올로기와 무관하게 매우 소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여성들의 낮은 저대표성의 원인이 되어왔다.(이순주 2003, 156-160) 이러한 여성할당제와 ‘2석 선거구방식’은 바첼렛 정부에서 매우 중요한 선거법개혁을 위해 활발한 논의

---

베네수엘라가 최근에 이 법안을 취소했다. (Starr 2006)

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Navia 2006)

선거제도에서의 여성할당제가 없는 대신, 리카르도 라고스 대통령이 자신의 내각 구성에서 5명의 장관을 여성으로 임명키로 한 ‘내각 여성할당제’는 여성정치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Starr 2006) 이를 통해 미첼 바첼렛이나 폰세르타시온 내에서 바첼렛과 경쟁 상대였던 솔레닷 알베아르(Soledad Alvear)<sup>3)</sup>와 같은 여성들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여성정치인들의 광범위한 대중성은 칠레와 같은 매우 보수적인 사회의 문화적인 변화까지도 가져오고 있다. 그 실증으로 최근 *Latinobarometro*의 조사에 의하면 칠레인들의 여성에 대한 태도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시민들보다도 훨씬 더 현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인들 중 26%만이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나은 정치지도자들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50%, 베네수엘라에서는 35%를 기록한 것보다는 나은 결과였으며, 조사대상 국가 총 18개국 중에서 칠레보다 더 낮은 비율을 기록한 국가는 5개국에 불과했다.<sup>4)</sup> 또, 여성은 집, 남성은 직장에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칠레인 29%에 불과했으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15개국에서 이러한 생각이 더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Latinobarometro* 2004) 이러한 조사결과는 이제는 더 이상 칠레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보수적인 국가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미첼 바첼렛과 같은 여성정치인은 정부의 내각으로 발탁됨으로서 광범위한 대중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신의 활동을 통해 여성의 역할과 활동영역 등에 관한 칠레의 사회문화적인 인식의 변화까지 야기하고 있다.

3) 솔레닷 알베아르(María Soledad Alvear Valenzuela)는 현재 상원의원이자 기독교민주당(Christian Democrat Party) 당수다. 2006년 5월 70%에 가까운 지지를 통해 기독교 민주당 당수로 추대되었다. 아일윈 정부당시 SERNAM의 초대장관이었고, 프레이(Eduardo Frei Ruiz-Tagle) 정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리카르도 라고스(Ricardo Lagos)정부에서는 외무부 장관을 맡으면서 미국, EU, 그리고 한국과의 자유 무역협정을 이끌어낸 인물이다. 2004년 말 기민당의 후보로 선출되어 사회당의 바첼렛과 단일 폰세르타시온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여론에서 나타난 바첼렛과의 지지도 격차가 커 경선을 포기하고 바첼렛을 지지하기로 했다.

4) 멕시코(14%), 우루과이(17%), 파라과이(21%), 페루(23%), 아르헨티나(24%)

### III.3. 전통적 여성 역할모델의 현대적 해석

선거 실시 전에 나타났던 바첼렛에 대한 높은 지지도는 하나의 ‘현상(fenómeno)’으로 볼릴 정도였다. 이러한 현상은 바첼렛의 카리스마와 삶의 역경, 개인적 감정이입, 훌륭하게 수행해낸 정부과제 등에 힘입은 바 크다. 또한 여기에 전통적인 리더십의 개혁과 정치인들에 대한 염증으로 인한 새로운 스타일에 대한 시민적 요구가 부가된 것이었다.(Contreras 2005; Bachelet 2005)

이와 함께 라틴아메리카의 전통적 여성에 대한 인식모델의 하나인 ‘마리아니스모(marianismo)’도 현대 칠레사회의 특성에 맞게 해석되어 적용되어 바첼렛에 대한 기대로 연결되기도 한다. 라틴아메리카의 남성성과 여성성은 마치스모와 마리아니스모로 대변된다. 특히 성모 마리아의 믿음에 대한 강력한 문화적 흐름이 존재한다. 마리아는 동정녀로서 상징적 존재다. 라틴아메리카의 여성은 정복기부터 차별받고 남성권력에 종속된 여성상이다.(이순주 2003, 12-15)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서서는 마리아에 대한 믿음은 차별당한 여성과 독신, 남성에게 버려진 여성들에게는 강력한 여성의 이미지로 비취진다. 여성가장으로서 숭한 어려움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정체성을 부여하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미지다. 어머니는 혹독한 상황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어머니는 그것이 전부다. 이러한 논리를 바첼렛에게 적용시켜보면, 그녀의 이혼은 여러 가지 경우에서 비난받아 왔지만 그것이 그녀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켰고, 오히려 마리아니스모를 통해 새로운 공적사례로 변모시켰다. 이혼한 여성이라는 조건이 수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커다란 상처일 뿐만 아니라 원죄의 하나로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혼’이 페미니즘의 아이콘으로까지 말해지지 않는 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상황이고 자연스러운 신분 상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칠레에서 오랜 논쟁 끝에 이혼이 허용된 것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칠레 가정의 거의 절반이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편모가정인

실정에 있다. 칠레사회는 강하고 이상화되어 있지만 추상적인 아버지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고, 실질적으로 약하지만 지속적이고 현존하는 어머니에게 맡겨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Walder 2005)

지금까지 이러한 모성이미지는 칠레와 라틴아메리카 정치의 많은 사례들에서 나타나있다. 오월광장의 어머니들, 공동부엌, 그리고 저항의 상징무기로서 냄비를 사용하기 등의 모습들은 결코 그 중 어느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Walder 2005) 바첼렛의 경우는 이러한 강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믿음은 그녀의 정치적 역정과 함께 그녀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IV. 바첼렛의 정치적 성향과 리더십 스타일

칠레 사회는 오랜 군사권위주의의 경험으로 인해 매우 남성적이고 가부장적인 리더십이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했다. 그러나 경제개방과 민주화의 과정을 통해 리더십에 대한 칠레 사회의 요구 또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 이는 다국적 기업을 둘러싼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보사회의 도래로 미래사회가 여성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주장과 여성의 특성이 미래사회에 더 유용할 것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음(남인숙 2005, 499)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칠레 사회가 바첼렛을 선택한 이유는 긍정적인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비롯한 이전 지도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고, 좀 더 ‘감성적’이고 ‘모성적’인 그녀의 여성적 리더십이 기존의 지도자들과는 다른 접근방식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Monopoli 2006; Villaroel 2005)

#### IV.1. 진보적 성향

일부 언론들에서는 바첼렛의 정치적 삶은 ‘극좌’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라고스보다 더 좌파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바첼렛의 승리는 그녀의 인간적인 따뜻함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첼렛과 같은 사회당출신이자 좌파 대통령인 라고스의 대중성과 국가경제의 호황에 힘입은 바 크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와는 달리 라고스는 개방경제를 유지했으며 사회주의자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미국의 비판을 불식시켰다. 바첼렛은 이러한 라고스의 경제정책과 대외관계에서의 노선을 유지하고 여성과, 빈민에 대한 관심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바첼렛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좌파정권들의 정치적 공격대상이 되고 있는 미국의 부시대통령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미주자유무역지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가벼운 형태의 미주자유무역지대를 지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개입과 방임을 혼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바첼렛은 사회주의자 이기는 하지만 극좌와는 다르다.

또한 바첼렛은 사회당 내에서도 매우 혁명적인 인물은 아니다. 바첼렛은 실제로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민주주의자’라고 말하면서, ‘민주주의’에서는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러한 측면이 ‘극좌’와의 차이라고 말했다. 또, 바첼렛은 스스로에 대해 1970년대에는 ‘사회주의자’였지만 현재는 ‘사회민주주의’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대표성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더 포괄적이 되어야 한다. 사회적 통합성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부문들을 통합하는 것 외에는 왕도가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는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에 따른 시장의 강화는 시민들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사회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녀가 군사권위주의의 희생자였던 만큼 군사권위주의의 잔재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바첼렛은 “칠레가 지금은 바른 길로 가고 있지만, 아직은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군사독재와 결탁했던 민간인들에 관한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들이 절대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누군가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도록 원하고 있다. 그는 “나는 결코 군사독재동안 인권남용으로 기소된 군부관계자들을 용서하는 법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공언했다.

#### IV.2. 강한 양성평등 의식

바첼렛은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양성관계에 있어서 마치스트적인 전통을 가진 사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녀는 대단한 평등의식을 가진 인물로 인식되고 있다. 바첼렛은 칠레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서 여성들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http://www.chileangovernment.cl/>) 그의 가시적인 정책 중 하나는 4년 동안 정부를 이끌 내각의 1/2을 여성으로 구성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었고, 이 약속은 충실히 이행되었다.<sup>5)</sup>

바첼렛의 여성정책은 ‘칠레를 위한 더 많은 여성계획(Plan Más mujeres para Chile)’으로 요약된다. 이 계획은 첫째,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여성을 위한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 창출 둘째, 여성의 평균수명을 고려한 연금 및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셋째,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가족, 넷째,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다섯째, 교육, 노동,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여성차별철폐, 여섯째, 여성건강 증진 및 섹슈얼리티 보장 등을 세부내용으로 하고 있다.

칠레사회에서는 마치스모로 일컬어지는 가부장적 제도와 2005년에서야 인정된 ‘이혼’제도의 부재로 인한 편모가정이 전체 가구의 1/3에 달한다. 바첼렛은 그러한 편모가정의 여성가장의 한 사람이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5) 이러한 구성은 집권 연정인 콘세르파시온에 소속된 정당들과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뱅크탱크’인 Expansiva에서 충원했다. 그 결과 정치계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여 내각의 경험부재와 정당들과의 관계에 불안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칠레 사회는 2004년 1월 상원에서 이혼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될 정도로 매우 보수적이었으며, 낙태 및 피임에 대해서도 매우 보수적이다. 바첼렛은 이에 대해 정부는 가톨릭교회의 의견표명과 상관없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국민 개개인의 신념과 의지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바첼렛은 전직 의사로서 낙태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모성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대신 사후피임약을 사용하는 것은 ‘낙태가 아니기 때문에’ 찬성하고 있다. 섹슈얼리티와 관련한 책임 있는 정책을 제시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그는 교육 및 보육정책에 있어 취학 전 아동에 대한 100% 무상교육실시와 교육의 질 향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통령집권 이후 양성평등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양성평등정책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라틴아메리카에서 최초로 내각을 남녀 같은 비율로 구성했다는 것이다. 둘째,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의 중앙행정부에서부터 차별 없는 노동을 위한 법안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고용주로서의 국가의 역할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 방법과 정책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사적부문의 고용에서도 참여기회 및 처우에서의 양성평등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양성평등적인 고용문화를 수립하기 위해 회사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바른 노동 가이드를 무역 및 제조업협회를 통해 배포했다. 셋째, 양성평등과 여성들에게 보다 나은 연금을 제공하기 위한 개혁을 통해 새로운 기초연금으로 60%의 여성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군대에서 여성지원 병력을 추가로 1000명을 증원했다.

#### IV.3. 리더십 스타일

리더십 형성과정을 볼 때, 기존의 라틴아메리카 여성대통령들이 남편의 후광에 힘입어 대통령이 되었던 반면, 미첼 바첼렛은 스스로



의 삶의 역정과 정치활동을 통해 만들어 졌다. 군사정권기의 정치적 활동들과 투옥, 망명생활은 대통령으로서의 강인함과 단호함, 인내심과 끈기를 만들어 냈다. 그녀의 장관경력 또한 보건과 국방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과 활동들이 바탕이 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첼렛의 리더십은 ‘전문가형’, 그리고 ‘자수성가형’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사회주의인터내셔널의 총재 피아 로카텔리(Pia Locatelli)는 바첼렛 대통령의 리더십을 ‘라틴아메리카 현실에서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이라고 평가하면서 ‘바첼렛은 민주주의와 거리에 나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이 문제해결의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바첼렛은 수평적, 민주적인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선호한다. 또한 시민들의 표현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안다. 또한 가장 마초적인 국가에서 가장 마초적인 집단을 이끌었던 국방장관 재임시절은 그러한 바첼렛의 리더십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시기다. 그야말로 남성적인 관계의 강화, 계서에 대한 집착, 충격적인 말들과 같은 무기로 이루어 낸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인간적인 면모들을 통해 군대의 개혁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첼렛의 리더십은 매우 ‘여성적’이다.(<http://www.cooperativa.cl/>)

언론들을 통해 나타난 바첼렛 정부의 첫 9개월은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새로운 스타일’의 정치를 시험하는 시기였던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바첼렛이 시민사회와 정치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새로운 인물들로 내각을 구성하여 과거의 주제와 인물들과는 상당한 거리를 뒀으로써 과거 정부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이러한 기존 틀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부분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정부의 양성평등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여러 분야의 정책들에 반영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첼렛의 시민사회와의 관계강화는 기존의 ‘제도화’수준에 이르렀던 대통령과 콘세르파시온 소속 정당들의 관계에 변화를 가지고 오면서 바첼렛의 통치스타일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바첼렛 정부가 경험한 첫 위기는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지속되었던 학생들의 교육개혁에 대한 요구였다.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매우 친근하게 접근했다가 나중에는 강하게 대응하여 ‘새로운 스타일의 정치’는 심각한 도전을 받았다. 정부가 학생들에 대한 설득과 압력을 통해 위기를 잘 넘긴 것으로 평가되기는 하지만, 바첼렛 정부는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왔던 정당연합내의 관계유지에 있어서 문제를 드러냈다. 집권좌파연합인 ‘꼰세르파시온’의 주요 인물로부터 현 바첼렛 정부의 문제가 행정부의 취약성이 아니라 정당기구와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 정부는 끝났다’라고 혹평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위기를 겪으면서 바첼렛에 대한 지지도는 집권 후 4개월 만에 18%나 하락했다. 다른 정치를 의미하던 ‘바첼렛주의(Bacheletismo)’는 정치가들의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판에 따르면, 정부의 ‘시민’정부라는 슬로건이 개념적으로 정의되지 못했고, 애매모호한 형태로 정당과 의회가 배제된 채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행정부를 의미했다. ‘새로운 리더십’을 의미했던 ‘바첼렛주의’가 선거전동안 매우 강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여론조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바첼렛주의를 비난하는 세력들은 정부가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시민들의 대다수가 정부의 역할을 신뢰하지 않을 때라고 이해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또 직접정부나 ‘시민’정부의 아이디어는 꼰세르파시온의 역사적 근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좌파와 대안주의자 또는 포퓰리즘을 자극하여 선거표를 모으려는 그룹, 그리고 민주주의로의 회복과정이 좀 더 개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이 있는 그룹을 결집시키는 회색지대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바첼렛이 약속했던 취임 후 100일 동안 이행할 36개의 약속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10개가 만들어 졌다. 이 위원회들에서 연금개혁, 여성할당제, 경제정책 등 중요한 사안들이 다루어지고 일부 프로그램들은 입법화를 위해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서 연금개혁과 같은 프로그램은 포퓰리스트적이고 협력적인 연금에서 벗어나 1981년 이래 사회보장에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매우 정교하고 광범위한 개혁을 제시했다고 평가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위원회를 통한 정치는 민주화 이후 지속되어왔던 콘세르파시온 정부의 전통이었던 ‘정당간의 협의’가 배제되고 중요한 정책적 사안들이 국회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기 시작했다. 이에 바첼렛은 콘세르파시온의 4개 정당의 당수로 만들어진 ‘정치위원회(conclave)’를 매주 월요일에 열어서 정치적 상황을 분석해 왔다. 이러한 6월부터 대통령이 소집한 ‘정치위원회’는 다시 정당을 정부의 중심에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은 콘세르파시온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었고, 이는 바첼렛이 좀 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그리고 상호적인 ‘여성적 리더십’을 통해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 중 하나였다.

## V. 맺음말

바첼렛은 칠레 최초의 여성국방부 장관으로서 수년 전부터 여론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대통령후보로 거론되면서 더욱 더 많은 여론의 지지와 반대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여성이자 이혼녀로서, 사회주의자로서, 그리고 불가지론자로서 활동하여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바첼렛에 대한 지지는 그녀의 삶의 역정이 격변을 겪어온 칠

6) 과거의 남성적 리더십이 권력지배와 동일시되었다면, 여성적 리더십은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함께하는 권력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적 리더십은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여 과제와 대인관계에 대한 유능성과 카리스마 등에 초점을 두고 위계조직 대신 팀 중심으로 운용되므로 권력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남인숙 2005, 495) 여성적 리더십관련이론들을 종합하면, 여성적 리더십은 공유하는 리더십(Shared Leadership) (Joan 1976), 좀 더 민주적인 리더십(Eagly and Johnson 1990), 상호적 리더십(Interactive Leadership)(Rosner 1990) 등 다양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여성적 리더십은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서 더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성적 리더십’이라고 분류되는 것이다. 이 중 공유하는 리더십이란 목적달성에 있어서 조직구성원들이 매우 수평적으로 동등한 인격체로서 유기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리더십을 의미한다. 공유하는 리더십, 민주적 리더십 그리고 상호적 리더십 모두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레의 역사와 맥을 함께하고 있고, 현재 그녀가 가진 모습이 많은 칠레여성들의 모습을 대변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녀의 활동과 존재, 칠레사회의 커다란 부분의 근대성과 변화의 가능성 간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열어내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민들의 참여와 대화,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 가는 바첼렛의 새로운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칠레사회의 기대는 칠레사회의 ‘혁신’이었다. ‘양성평등적인 내각구성’, ‘양성평등노동’, 그리고 ‘여성할당제’의 추진 등을 통해 기존의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정치스타일을 시민들이 더욱 더 많이 참여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정치로 바꾸는 것이었다. 이는 여성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던 칠레 원주민들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바첼렛이 집권한지 아직 1년이 되지 못했지만 남은 시간도 3여 년 밖에 되지 않는다. 바첼렛 정부는 내각의 구성부터 여성비율을 50%로 구성하여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여성의 국회진출확대를 위해 여성할당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칠레 사회에서의 여성들에 대한 인식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2005년 선거이후 나타난 칠레 정치에서의 보수세력의 약화는 더욱 더 많은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칠레 국회에서 2004년 ‘이혼’이 법적으로 인정되기까지 대단히 오랜 시일이 걸린 것을 감안한다면 바첼렛 정부시기동안 양성평등분야의 진보가 얼마나 이루어질 지는 앞으로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첼렛 정부의 등장 자체가 이미 칠레 사회의 많은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 Abstract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significances of appearance of the first woman president Michelle Bachelet in one of the conservatist countries with catholicism and paternalism. And this study also presents changes of chilean socio-political contexts and estimations of leadership

style of Bachelet.

During Chile's transition to democracy, perception of women's socio-political role has changed significantly. As an electoral gender quota system is not established yet in Chile, the representation of women remains very low. On the contrary, Ricardo Lagos's efforts to organize his cabinet including five women ministers gave opportunities to change its traditional awareness of women's political activities. And the faith of strong women and mother, a modern interpretation of marianismo gave a more possibility to adapt first woman president in Chile. And the leadership of Bachelet can be characterized by self-established and feminine leadership.

Key words: 칠레, 대통령, 마리아니즘, 여성적 리더십, 자수성가형 리더십/  
Chile, President, marianismo, feminine leadership, self-established  
leadership

논문투고일자: 2007. 01. 28

심사완료일자: 2007. 02. 13

게재확정일자: 2007. 02. 20

## 참고문헌

- 김민정(2006), 「필리핀의 정치위기와 여성리더십: 아키노와 아로요의 비교」, 동남아시아연구, Vol. 16, No. 2, pp. 173-214.
- 남인숙(2005), 「변화하는 사회와 여성적 리더십」, 대한정치학회보, Vol. 13, No. 2, pp. 495-512.
- 양길현(2003), 「아웅산 수지의 민주화 리더십: 용기모델과 민주화전략」, 동남아시아연구, Vol. 13 No. 1, pp. 131-164.
- 이순주(2003), 『라틴아메리카여성운동과 여성정책』, 세종출판사.
- 이순주(2005), 「칠레의 여성리더-미첼레 바첼렛」 in 한국정치학회연례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세계여성정치인의 리더십』, pp. 51-54.
- 전주예(1996), 「중남미 여성지도자의 정치적 리더십 연구: 에바 페론과 비올레타 차모르의 정치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권준(2005), 「에비타의 페미니즘적 인식과 정치적 실천」, 스페인어문학 Vol. 36, pp. 497-512.
- Bachellet, Michelle(2005) “La gente hoy demanda un nuevo estilo de hacer las cosas”, *Foro 2005*, Abril, pp. 13-16.
- Eagly, A. H., & Johnson, B. T.(1990), “Gender and leadership style: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8, Issue 2, pp. 233-256.
- Binstock, Hanna(1998), *Toward equality for women: Progress in legislation since the adop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omen and Development Unit, Santiago: ECLAC.
- Contreras, Marcelo(2005), “Las nuevas tendencias que muestran las encuestas y la campaña presidencial”, *Revista Foro*, No. 43, Enero-Febrero.(<http://www.chile21.cl/foro21/43/5.act>)
- Daniels, Alfonso(2006), “From torture victim to president”, *The Progressive*, March 2006, pp. 30-32.

- Del campo, Esther(2005), "Women and politics in Latin America: Perspectives and limits of the institutional aspects of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Social Forces*, June 2005, Vol. 83, No. 4, pp. 1697-1726.
- Helgesen, Vidar(2006), "Options for reforming Chile's electoral system",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IDEA), paper presented I Santiago, Chile, 24 April.
- Huneus, Carlos(2005) "Chile: A system frozen by elite", in *Electoral system design: the new IDEA handbook* by International IDEA, PDF file in <http://www.idea.int/>
- Navia, Patrica(2006), "Principios rectores para una reforma electoral", *en foco*, No. 68, Santiago: Expansiva.
- Siavelis, Peter(2004), "Sistema electoral, Desintegración de coaliciones y democracia en Chile: ¿El fin de la concertación?", *Revista de Ciencia Política*, Vol. 24, No. 1, pp. 58-80.
- Silva, Patricio(2002), "Searching for civilian supremacy: The Concertación governments and the military in Chile", *Bulletin of Latin American Research*, Vol. 21, No. 3, pp. 375-395.
- Silvestre, Jaylyn(2001), "The rise of women leaders in the Philippines: A study of Corazon Aquino and Gloria Macapagal-Arroyo", <http://www-mcnair.berkeley.edu/2001journal/JSilvestre.html>.
- Joan, J.(1976), "Who was Rembrandt's mother?", *Quest*, Winter, pp. 24-25.
- Starr, Alexandra(2006), "A woman's place is in the presidential mansion: What's behind the rise of female politicians in Latin America?", 04 January 2006, <http://www.slate.com/id/2132943/#sb2132945>.
- Jalalzai, Farida(2004), "Women political leaders: Past and present", *Women & Politics*, Vol. 26, No. 4, pp. 85-108.
- Walder, Paul(2005) "El poder, ¿es siempre masculino? Michelle: ¿Una madre para Chile?", *Punto Final*, Edición 605, 25 de

Noviembre- 8 de Diciembre 2005.

Guell, Pedro E.(2004) “Chile has changed... but in what ways has it changed?”, *ReVista/Harvard Review of Latin America*, Spring 2004, <http://drclas.fas.harvard.edu/revista/articles/view/687>.

Latinobarometro(2004) “Informe: Resumen Latinobarometro 2004: Una Década de Mediciones”, <http://www.e-lecciones.net/novedades/archivos/Latinobarometro2004.pdf>.

Monopoli, Paula A.(2006) “Gender and constitutional design”, *The Yale Law Journal*, No. 115, pp. 2643-2651, [http://digitalcommons.law.umaryland.edu/cgi/viewcontent.cgi?article=1133&context=fac\\_pubs](http://digitalcommons.law.umaryland.edu/cgi/viewcontent.cgi?article=1133&context=fac_pubs).

VillaroelL, Martín(2005), “Chileans set to elect a woman”, <http://www.csmonitor.com/2005/1209/p06s02-woam.html>

Rosener, Judy(1990), “Ways women lead”, *Harvard Business Review*, Nov-Dec, pp. 119-125.

“Organización de mujeres socialistas homenajeó a Bachelet en Atenas”, [http://www.cooperativa.cl/p4\\_noticias/site/artic/20060127/pags/20060127192824.html](http://www.cooperativa.cl/p4_noticias/site/artic/20060127/pags/20060127192824.html)(Viernes 27 de enero de 2006)

<http://www.elecciones.gov.cl>

<http://www.michellebachelet.cl/>

<http://www.lanacion.cl/> (La Nación)

<http://www.lun.com/> (Las Últimas Noticias)

<http://www.elsiglo.cl/>(El Siglo Digital)

*Santiago Times*(2004.02.03)